배우 윤여정, 영국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 후보에

‘기생충’처럼…오스카 노미네이트 보인다

윤여정, 바칼로바·메덱 등과 경쟁
‘미나리’, 감독상 등 6개부문 후보
美 ‘아카데미’, 내달 25일 시상식

윤여정이 한국배우 최초로 영국 아카데미상 연기상 후보에 올랐다. 사진제공 | 부산국제영화제

배우 윤여정이 오스카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윤여정이 영화 ‘미나리’로 영국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라 미국 아카데미상 노미네이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4월11일(이하 한국시간) 시상식에서 수상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영국 아카데미상이 미국 아카데미상의 ‘시금석’으로 불려온 만큼 윤여정의 오스카행도 점점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영국 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영국 영화TV예술아카데미는 10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올해 각 부문 후보자(작)를 발표했다. ‘미나리’는 감독상과 외국어영화상, 각본상 등 6개 부문 후보가 됐다. 윤여정은 여우조연상 후보로 이름을 올려 ‘보랏2:서브시퀀트 무비필름’의 마리아 바칼로바를 비롯해 ‘종말’의 니암 알가르, ‘컨트리 라인’이 애슐리 메덱 등과 경쟁하게 됐다. 9일 미국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 아역배우상을 받은 앨런 김도 남우조연상 후보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윤여정과 ‘미나리’의 영국 아카데미상 노미네이트는 전 세계 최대의 대중적 시상식인 미국 아카데미상에 앞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영국 아카데미 수상자(작)가 미국 오스카 무대에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영국 아카데미 감독상과 외국어영화상을 받으며 미국으로 직행해 작품상과 감독상 등 모두 4개 부문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특히 윤여정은 지난해 미국 선댄스영화제 심사위원대상 이후 무려 85개의 트로피를 거머쥔 ‘미나리’의 주역으로, 일찌감치 현지 언론으로부터 아카데미상의 유력 후보로 점쳐져왔다. 10일 현재까지 무려 30개 여우조연상을 받은 뒤 영국 아카데미상 후보로 최종 낙점되면서 이 같은 성과의 또 다른 결실을 맺을 가능성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캐나다 밴쿠버에서 미국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TV 플러스의 드라마 ‘파친코’를 촬영 중인 윤여정은 ‘미나리’이 오스카행을 위한 홍보 및 프로모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편 ‘미나리’의 정이삭 감독은 영국 아카데미상 감독상과 함께 이날 미국감독조합의 감독상 후보에도 올랐다. 미국 감독조합상 역시 아카데미상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수상 여부가 주목된다. 시상식은 4월25일 아카데미상에 앞서 10일 열린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SBS ‘펜트하우스’ 시즌2

중국 시청자도 욕하면서 본다 한한령에도 ‘펜트하우스’ 인기

‘욕 하면서 본다’? 전 세계 보편적인 감성일까.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즌2가 중국에서도 인기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현지 유통을 규제하는, 이른바 ‘한한령’ 조치 속에서도 명성을 높이며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따르면 ‘펜트하우스’ 시즌2가 최근 중국 누리꾼의 최대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중국 최대 문화콘텐츠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서 최고 평점(8.1점)을 얻으며 시선을 끌고 있다. 한한령 규제 속에서 현지 공식 유통망을 통해 정식으로 공개되지 못하고 있지만, 현지 누리꾼들은 다양한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드라마를 접하고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펜트하우스’ 시즌2는 지난해 ‘막장’ 논란 속에 28.8%(이하 닐슨코리아)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할 만큼 화제가 됐던 시즌1에 이어 역시 엇비슷한 수치로 시청자를 끌어 모으고 있다. 서울 강남의 호화 주상복합아파트를 배경으로 욕망에 사로잡힌 이들의 끊임없는 투쟁을 그린 이야기는 중국에서도 큰 공감을 얻고 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박경진 통신원은 “중국 누리꾼들이 휘몰아치듯 빠른 전개로 극의 몰입을 유발하는 드라마에 대체로 묘한 쾌감과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막장의 공식을 독특한 방식으로 유희하고 있는 드라마에 대한 중국 누리꾼의 호의적 반응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누가 더 악랄한가? ‘악역 끝판왕’ 빅뱅

‘루카’ 김성오 소름끼치는 공작원
‘펜트하우스2’ 엄기준 국민나쁜놈
‘마우스’ 안재욱 엽기 살인 사형수

tvN ‘루카’ 김성오

SBS ‘펜트하우스’ 엄기준

tvN ‘마우스’ 안재욱

악역은 드라마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주역이다. 극적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최적의 캐릭터로 꼽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웬만한 연기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악역 캐릭터로서 개연성을 확보해 시청자 공감을 얻기란 쉽지 않다. 더욱이 최근 드라마 제작의 흐름은 과거에 비해 더욱 뚜렷해진 장르적 특성을 살려내는 방향이어서 악역을 제대로 소화해낼 연기자가 중요해졌다. 그런 점에서 tvN ‘루카’의 김성오, SBS ‘펜트하우스2’의 엄기준, tvN ‘마우스’의 안재욱은 저마다 차원이 다른 악랄함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악역 끝판왕’으로 불릴 만하다.

김성오는 9일 종영한 ‘루카’로 악역의 자리를 한층 더 굳혔다. 극중 특별한 초능력으로 김래원을 쫓는 특수부대 출신 공작원으로 시선을 끌었다. 앞서 영화 ‘아저씨’ ‘널 기다리며’ 등에서 선보인 소름끼치는 악역을 다시 선보였다.

그는 10일 화상인터뷰에서 “한때 악역만 제안 받아 서운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악역전문 배우’로 단번에 떠올려주셔 감사하다”며 “이 참에 다양한 악역의 결을 개발하겠다는 욕심도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는 단순히 ‘나쁜 사람’에 그쳤던 악역이 최근에는 다양한 감정과 서사를 담는 그릇으로 커졌다”며 “이 때문에 시청자도 악역의 매력을 더 다채롭게 느낄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엄기준은 ‘펜트하우스’ 시리즈의 대표적인 악역이다. 상류층만 입성할 수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헤라팰리스의 최고 권력자로서 악행을 이어가고 있다. 극중 이지아와 유진을 괴롭힌 데 이어 불륜으로 결혼까지 한 김소연조차 위기에 빠뜨린다. “엄기준의 미소만 봐도 화가 난다”는 반응을 보이는 시청자가 쏟아진다. 그는 “국민 ‘나쁜놈’으로 등극하겠다”며 “시즌2에서 더욱 악랄한 악행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욱은 데뷔 27년 만에 첫 악역을 맡았다. ‘마우스’에서 엽기 살인을 행한 사형수로 등장하고 있다. 경찰 이승기·이희준이 쫓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의 단서를 쥔 인물이다. 이전에 보여주지 않은 서늘한 연기로 영화 ‘양들의 침묵’ 속 살인마 한니발을 연상시킨다는 호평도 이끌어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코로나에 고생하시는 점주님들께 특별히 전문 상담해 드립니다.

화산석 도자기 불판 탄생!!

그 동안 맛 없는 고기를 비싸게 사 드셨다면...그래서 탄생한 불판!!

화산석돌구이의 노하우가 드디어 화산석 불판으로 탄생!
연구 · 개발 · 피드백 – 연구 · 개발 · 피드백을 반복하며, 검증된 노하우와 확실한 품평회를 거친 보물 신상!

잡내가 제거되고, 눌어붙지 않는 건강하고 맛있는 고기가 된다!

그 동안 값 비싼 고기를 구워 드셔도 만족하지 못했다면...
철판과 숯불에서 먹던 고기 맛에 익숙해져, 다른 세상을 보지 못한 분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고기 먹는 3육 법칙
- 육질이 연하다!
- 육즙은 보존!
- 육향을 더욱 진하게…

2021년 신상품 출시!
업소용 (배달전문점/테이크아웃 적극추천)
가정용 (집에서도 명품 구이의 풍미를…)

화산석 돌판 / 게르마늄 불판
천연원적외선, 음이온 방사

코로나시대! 불황탈출 전국 시.군.구 총판 / 각 지역 대리점 / 딜러 및 영업사원 모집 | 전화주문 및 문의 1661-5453